

대학생들의 개인특성, 창업교육, 창업관련지식 및 창업의지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정유선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석사)*

정화영 (한밭대학교 경영회계학과 교수)**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개인특성인 성취욕구 및 위험감수성향, 창업교육 및 창업관련지식, 그리고 창업의지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대학생들이 창업의지를 제고하는데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관련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대학생들의 개인특성인 성취욕구가 높을수록 창업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위험감수성향을 지닌 학생들은 창업교육을 통하지 않고 창업관련지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험감수성향과 창업교육과의 구조관계와 성취욕구와 창업관련지식과의 구조관계는 직접적인 영향관계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창업교육은 창업관련지식으로의 관계는 긍정적인 효과로 학생들이 창업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창업관련지식이 향상됨을 알 수 있어 창업의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창업교육을 통한 창업관련지식의 습득에 체계화를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창업교육은 그 자체로서도 창업의지를 향상시켜 학생들로 하여금 창업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창업교육을 통한 창업관련지식의 습득이 창업의지를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따라서 개인특성인 성취욕구와 위험감수성향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만 매개변수인 창업교육과 창업관련지식을 실행하고 체득케 함으로서 창업의 의지와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주제어: 개인특성, 창업교육, 창업관련지식, 창업의지

1. 서론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는 늘어난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상은 저성장시대고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설비자동화, 정보기술 산업에로의 의존도 확대, 국내기업들의 해외로의 공장이전의 가속화, 서비스산업의 성장의 정체 등이 고용 없는 성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생들로 하여금 창업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성공적 창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발전에 기여하며,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의 이전 및 확산, 정부지원 연구개발의 성과향상, 산학교류, 대학의 자산화, 동문간 네트워크 등 다양한 측면의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특히,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새로운 지식을 상업화로 발전시킬 수 있는 주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간과될 수 없다(Bailetti, 2011; 호병환, 2016).

창업교육을 통해서 창업까지 지원하는 대학창업 교육과정으로 인해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욕구는 계속 높아지지만 아직까지도 창업에 대한 위험부담이 크고, 취업이 안정적이라는

측면에서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팽배하여 잠재적 창업가의 과감한 도전을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창업을 활성화시키고 이들의 창업 성공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기관, 학교기관 등의 지원 뿐만 아니라 대학생 개인동기를 유발시키면서 창업관련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교육환경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창업가정신과 창업교육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창업관련교육이 창업에 대한 개인의 행동이나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Hatten & Ruhland, 1995). 창업교육은 대학생들의 창업인식을 높이고 개인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발견하도록 하여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하규수·서란숙, 2009; 최옥희 외, 2017).

그동안 창업교육 및 지원정책이 확대되면서 이로 인한 성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창업으로 유인하여 도전하게 하여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한 요인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많은 창업교육연구에서 대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창업교육은 개인적인 동기를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창업의지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주저자,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창업학과 석사, ysjung@kongju.ac.kr

**교신저자, 한밭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회계학과, chy555@hanbat.ac.kr

· 투고일: 2018-09-12 · 수정일: 2018-11-19 · 수정일: 2018-12-18

· 게재확정일: 2018-12-25

Saeed et al.(2015)의 연구에서는 세계적으로 대학에서 창업교육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창업의지와 관련하여 사회심리학의 측면에서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있다. 즉, Ajzen & Fishbein(1980), Sandberg & Hofer(1987), Bird(1988), Mazzarol et al.(1999), Krueger(1993), 조준희·김찬중(2015), 강재학·양동우(2016), 변상해·강선자(2017) 등의 개인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개인특성 요인과 창업의지간의 관계를 연구한 여러 연구자들은 개인적 특성 요인이 창업의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초창기에 이루어진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는 개인적 특성요인(성취욕구와 위험감수성향 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 졌다.

또한 Timmons(1994), Ronstadt(1985), Garavan & O'Connide(1994), Gibb(2002) 등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창업관련지식 및 태도 등을 학습함으로써 잠재적인 창업가에게 창업의지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대학생들의 성취욕구와 위험감수성향과 같은 개인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사이에 창업교육과 창업관련지식이 구조적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지니고 있는 특성인 성취욕구와 위험감수성향이 창업교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과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관련지식을 경로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에 대한 검증 등을 통해 대학생 개인특성, 창업교육, 창업관련지식, 창업의지간의 영향관계를 정립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한다.

위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충청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들 중 창업관련 교육을 직·간접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연구하면서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관련지식을 획득하도록 여러 가지 형태의 창업지원 교육방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선행연구

2.1 개인특성

개인특성은 개인이 다양한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Allport, 1937), 또한 개인이 여러 상황에서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것(Cattell, 1965)이라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창업의지에 미치는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개인특성으로 성취욕구와 위험감수성향을 통하여 연구를 전개하고자 한다.

2.1.1 성취욕구

Murray(1938)의 연구로부터 유래한 성취욕구 (Need for Achievement)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달성하려는 욕구, 물질적

사물, 인간, 사상을 이해하고, 이를 조작하며 조직화하려는 욕구, 가능한 한 신속하고 자주적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려는 의욕, 어려움을 극복하여 높은 목표를 이룩하려는 욕구, 자신을 탁월하게 만들려는 의욕, 타인과의 경쟁에서 그들을 능가하려는 욕구, 자신의 재능 (Talent)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자기 자신의 가치를 향상시키려는 욕구라 할 수 있다(백기복, 1994; 김완재, 2007). 따라서 성취욕구가 있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일을 추진함에 있어 스스로 책임지고 목표를 성취하려는 자세를 가지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일을 성공시키려 한다.

McClelland(1961)는 성취욕구가 강한 사람이 목표 설정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모험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도전적인 목표설정을 좋아하며,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고 한다. 그는 높은 성취동기가 있는 사람들로 사회가 구성되면 빠른 성장을 보이며,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여러 국가 청소년들의 성취욕구와 창업관련행동과의 관계성 연구를 통하여 성취욕구가 높은 청소년들이 직업적으로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선호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처럼 그는 성취욕구를 창업가적 행동과 관련시켜왔다. 한편, 그의 연구 이후 다양한 후속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성취욕구가 성공의 주요요소로 간주되어 왔다. 이는 개인의 성취욕구가 높을수록 성공에 자신감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교육에 임하였으며, 창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박시사·강성일, 2007). 따라서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개인이 책임지는 경향이 있기를 좋아하며, 스스로 도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2.1.2 위험감수성향

위험감수성향 (Risk-Taking Propensity)은 의사결정에서 기회를 획득하기 위해 위험을 수용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회를 취할 때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에서 차이를 보인다. 위험감수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보다 신속히 내리고 기회를 잡으려 하는 반면, 위험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보다 조심스럽게 의사결정을 내리며 위험을 줄이려고 노력한다(이승재·황보운, 2010). 개인특성과 관련하여 위험감수성향은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과감히 대응하는 정도(Jackson et al., 1972)이며, 이들의 성향은 높은 위험의 프로젝트를 선호하며,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회를 모색하고 추구하려는 의욕을 지니고 있다(Covin & Slevin, 1991). 따라서 이는 개인적인 특성일 뿐만 아니라 창업에서 기업가들이 도전적인 업무와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역량의 필요 요소이다(호병환, 2016).

한편, McClelland(1961)는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이 적절한 위험감수성향을 가진다고 하였으며, 김성순(2010)연구에서 창업자는 일반적으로 높은 성취욕구를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위험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높게 나타나는 위험선호자

(Risk Taker)일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창업가에게 있어 기업위험은 불확실성하에서 행하는 의사결정과정으로 항상 존재하며,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개인의 특성은 창업의지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 위험감수(Risk Taking)는 창업가의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을 통하여 위험감수성향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상황을 과감히 대처하고 떠맡아야 할 위험부담을 진 창업가형 의지라고 할 수 있다.

2.2 창업교육

대학생 창업교육이 창업에 관련한 지식과 기능, 태도 및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기본적인 경제 지식함양과 창업능력을 제고하여 영구적인 직업으로 이어져 당당한 주체자로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경제인으로 기업가적인 태도와 능력, 기업의 책임과 윤리, 시장경제와 기업경영에 대해 이해하고 창의적인 창업의 의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창업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창업교육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창업의 역량을 기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창업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창업 방법을 모른 상태에서 맹목적인 창업의지만 갖고 창업을 한다면 그것은 매우 무모한 창업(김용태, 2009)이며, 같은 맥락에서 이상문·장대성(2003)은 올바른 창업교육 없이 창업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의지가 나타날 수 없고 그릇된 의식과 의지로 인한 창업은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곽동신 외, 2016).

창업교육은 예비 창업자 또는 잠재적 창업자에게 창업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창업역량 및 기업가정신을 북돋아 창업성공률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정태화, 1996; 박윤희, 2004; 임순영, 2012). 실제로 창업교육은 사업을 준비하거나 운영하지는 않더라도 잠재적 창업자로서 사업경영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창업교육은 개인들에게 창업동기를 부여하고 학생들의 창업역량을 강화하여 성공창업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다. 황보윤·양영석(2012)은 창업교육을 “창업관련지식, 기능, 태도를 가르쳐 새로운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하였으며, 김주미 외(2007)은 “미래의 창업자에게 창업관련지식, 기능, 태도 등을 가르치는 교육뿐 아니라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피고용된 입장에서 업무수행에 긍정적인 자세와 태도를 갖고 일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으로 창업교육을 정의하고 있다.

김기홍·김용태(2014)는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창업자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창업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후천적 역량을 얻을 수 있으며,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의지를 높일 수 있는 이유로 창업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에 필요

한 사항을 알고 이를 이루어낼 수 있는 기업가의 역량(Entrepreneurial Ability)을 갖추어야 한다(정유선, 2018).

따라서 창업교육 사업진입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수준을 전략과 기술적 실행측면에서 간접적인 사례교육에 의해 지식과 기술을 체득하도록 함으로써 창업의 기회를 발견하고 발견된 기회를 익히도록 하는 학습방법이다.

2.3 창업관련지식

Alavi & Leidner(2001)는 지식을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개인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입증된 믿음이라 하였다. 지식의 목적은 일하는 방법을 향상시키거나 발전시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Drucker, 1993)이며 고부가가치의 정보, 기본적인 자료와는 달리 사람의 인지활동 속에서 사용자의 인식, 해석, 분석, 이해 등의 활동으로 경험이나 문제 상황과 결합하여 보다 부가가치적 지식으로 변모시키는 것이다(노순규, 1999; 임채관 외, 2013).

창업관련지식(Startup-Relevant Knowledge)은 창업과 관련하여 아주 구체적인 지식에 관련된 개념이다. 근본적으로 창업과 같이 비일상적인 행동에서는 관련 지식이 늘어날수록 인식이 바뀌고 해당 의지와 욕구 발생에 동기가 되기도 하며 행동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Timmons, 1994).

결국, 창업관련 지식이 쌓일수록 창업에 대한 동기부여, 창업의지는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등 외부적 영향으로의 창업관련지식 습득은 창업에 대한 능력 향상에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정유선, 2018).

창업에 관련된 지식으로는 경영관련 지식과 상품 개발 지식으로 나뉠 수 있다. 현재 일반적 관점에서 창업관련 교육을 통한 창업 지식의 전달은 창업의 시작과 성장과정, 자원관리와 팀 관리, 사업계획, 마케팅 등 창업경영에 관련된 지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Morris, 1998; 차화숙, 2012).

창업관련지식은 경영관련지식으로 중요한 것은 상품화능력에 대한 지식이다. 상품화 능력의 의미는 단순히 아이디어의 발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상된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상품을 제작, 생산과 유통 체계를 확보하는 것까지를 의미한다(차화숙, 2012; 정유선, 2018). 결국, 창업관련지식은 경영능력의 배양과 기술능력의 확보(배중태·차민석, 2005)할 수 있다.

2.4 창업의지

의지(Intentions)는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행동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선행과정(Fishbein & Ajzen, 1975)이다. Fishbein & Ajzen(1975)에 따르면 의지는 실제로 하고 싶은 행동을 하려는 수준이며, 사람들이 자각하는 사회적 물리적 환경과 자신의 행위에 의해 미래에 나타나게 될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 창업의지는 창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조직의 창조라는 목적을 두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이며(윤백중, 2012),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기초를 형성

하기 때문에 창업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된다(Veciana et al., 2005; 호병환,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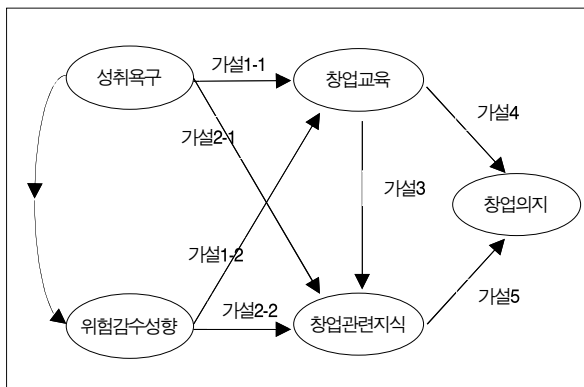
장석운(2012)의 연구는 창업의지란 실질적인 창업이 아닌, 미래에 스스로 창업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Bird(1988)는 개인이 조직에 속하게 되는 것에 반대 개념으로써 자영업 (Self-Employed)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행동 등을 다루는 마음의 상태를 창업의지로 정의하였고, 윤방섭(2004)은 창업에 대한 행위의 의도적 태도로 창업의지를 정의하였다.

창업의지의 중요성은 예비 창업자들이 국가나 조직의 경력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Shapero & Sokol, (1982)은 국가, 지역 경제, 조직이 제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회복력 (Resilience)과 자기 혁신적 (Self Renewing) 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잠재적으로 창업의지를 갖고 있는 창업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개인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시기나 경우가 주어지면 기업가적 기량과 타고난 능력을 발휘하여 창업관련행동을 주도하는 잠재적 창업가들이 많이 있으면 지역, 조직 그리고 집단 등이 유연성을 갖추게 된다(이지우, 2000; 정유선, 2018).

III.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3.1 연구모형

기존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개인특성인 성취욕구 및 위험감수성향이 창업교육 및 창업관련지식에 의해 영향을 미치고 (Clow, 1997; Sagie et al., 1996; 김창중, 2011; 이지우, 2000) 창업교육 및 창업관련지식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ittaway & Cope, 2007; 조병주, 1998).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배경을 통해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독립변수인 개인특성 (성취욕구, 위험감수성향)이 매개변수 (창업교육, 창업관련지식)에 따라 창업의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계한다.



<그림 1> 연구모형

3.2 개인특성과 창업교육의 관계

개인특성에서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과업을 선호하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행동기회와 개인적인 성장 및 발전기회를 찾고자 노력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선호하고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과업을 선호하는 성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Payne, 1998; Sagie et al., 1996; 김창중, 2011). Johnson(1990)은 성취욕구와 창업관련 행동 혹은 성향관계를 다룬 연구를 재분석하여 23개 실증 연구를 분석하였고, 20개의 연구결과가 성취욕구와 창업관련 행동이나 성향사이에서 양(+)의 관계를 입증하였다.

최근 창업의지와 관련하여 자주 위험감수성향 요인을 언급하고 있으나, 위험감수성향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창업자 개인의 특성으로 서로 상이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Smith & Miner(1983)는 위험회피성은 저성장 기업의 기업가보다 고성장 기업의 기업가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으며, Begley & Boyd(1987)은 위험감수성향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재무적 성과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적절한 수준의 위험감수성향은 재무적 성과의 증가와 관련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Brockhaus(1975)는 위험감수성향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밝힐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수진(2015)연구에서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주관적 규범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실증연구에서 개인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창업교육의 조절효과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창업교육은 개인특성과 창업의지 사이에 조절적 효과가 있음을 연구하였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에 기초할 때 대학생 개인특성과 창업교육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 가설 1-1. 대학생 개인특성인 성취 욕구는 창업교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2. 대학생 개인특성인 위험감수성향은 창업교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개인특성과 창업관련지식의 관계

창업행위를 촉진시키고 창업을 성공시키는 요인은 창업환경 조건, 개인적 동기, 창업관련지식 또는 기술이다. 창업행위가 활발해질 수 있는 정도는 창업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상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조병주, 1998).

창업행동을 일으키는 동기는 개인이 처한 특수한 내적 심리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성취욕구나 위험감수성향을 지니고 있는 창업가들은 창업관련지식을 얻고자 노력한다. 성취 욕구는 창업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창업의지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특성으로 간주되고 있다(이지우, 2000).

창업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짐으로서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관련지식을 획득하고 그들의 성취동기를 촉진할 수 있는 내부 환경을 조성하면서 그들의 창업가적 행동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에 기초할 때 대학생 개인특성과 창업관련지식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2-1. 대학생 개인특성인 성취 욕구는 창업관련지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대학생 개인특성인 위험감수성향은 창업관련지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4 창업교육과 창업관련지식의 관계

창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에 대한 동기부여와 올바른 기업가 정신을 함양시켜 창업의 시작과 성장과정, 자원배분과 조직관리, 사업계획, 마케팅 등 창업경영 방법을 교육시킨다면 이들은 창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을 동시에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창업교육은 비전, 창의성, 직관, 의식, 상식에 매우 큰 비중을 두고 있다.

Baumgartel et al.(1984)은 중간 관리자 260명을 대상으로 직위, 성취욕구, 통제위치, 교육 직후의 적용여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성취욕구가 높고 내적통제위치를 가진 사람이 교육을 통해 얻은 새로운 지식을 실제 현장에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학생들에게도 창업에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관 등을 가르치는 창업교육이 직업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정태화, 1996).

Clow(1997)은 국민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함양시켜 이들로 하여금 중규모 기업가가 되게끔 창업교육이 교육기관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학생들에게 창업교육은 경영의 목적, 구조, 경제활동 타 영역과의 상호관계 등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도록 하며, 학생들의 창업능력의 함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조병주(1998)은 창업교육이 개인에게 창업의 동기를 부여할 뿐 아니라 벤처기업의 성공여부에 영향을 주는 창업관련지식과 기술을 전달해 주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에 의하면 창업관련지식이나 기술은 개인에게 창업동기를 촉진함으로써 창업교육은 창업의지를 높일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창업가에 대한 개념은 타고나는 것이라기보다는 후천적으로 창업교육을 통해서 창업활동이 촉진되고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다는 인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창업교육은 예비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과 관련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창업역량 및 창업가정신을 높여 창업에 대한 성공률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에 기초할 때 창업교육과 창업관련지식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3. 창업교육은 창업관련지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5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

기업가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방법으로 이상문·장대성(2003)은 창업교육이 창업의지를 높이는 데 영향을 주고, 창업교육이 없이는 창업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으며, 창업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초기 창업자의 성공확률을 높이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함을 공감하였다. 미국 MIT나 스탠포드 대학 등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다수의 졸업생들이 창업에 성공하는 사례들은 적절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향상된 기업가적 역량이 함양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Raichaudhur, 2005). Pittaway & Cope(2007)의 연구에서 대학생 8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 창업관련 과목 수강 이후 창업에 대해 고려하게 된 학생이 증가한 것을 통해 대학에서 운영한 창업관련 교육은 창업의지를 촉진시켰다고 주장하였다.

임순영(2012)은 사업계획서의 사후 창업의지와 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창업교육이 차후 창업의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는데, 성공하는 창업가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창업을 장려하는 문화적·사회적 배경에서 교육을 통하여 성장 발전할 수 있다고 하였다.

Crant(1996)은 창업의지에 대해 창업교육의 수준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창업교육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창업의지도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에 기초할 때 창업교육과 창업의지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4. 창업교육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6 창업관련지식과 창업의지의 관계

조직구성원의 행위나 활동은 최고경영자의 행위나 활동에 의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Lyles & Schwenk, 1992) 시장지식을 만들어내는 노력은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요구되는 전략과 같은 행동들을 적절하게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심택섭·최지호, 2007).

조병주(1998)는 창업관계지식이나 기술은 개인에게 창업동기를 제공하는 방아쇠로 작용한다고 믿어진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창업이 어떻게 일으켜 질 수 있으며, 창업성공요인이 어떠한 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 창업을 하려는 동기를 자극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창업관련 지식과 기술은 창업자에게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창업동기와 창업의지를 촉진시키며, 특히 대학생의 창업의지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대학 내의 실무형태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김상수·김용우(2000)는 최고경영자가 지식에 기반을 두고 경영에 대한 관심과 비전제시,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배정, 지식관리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지식경영의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임채관 외, 2013).

임채관 외(2013)은 서비스업 분야연구에서 창업자의 지식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창업자의 지식이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인 정성적 성과 모두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에 기초할 때 창업관련지식과 창업의지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5. 창업관련지식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IV. 연구방법

4.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도출된 연구변수들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내리고, 선행연구자들의 측정항목을 수정하여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개인특성인 성취욕구란 힘든 일을 달성하려는 욕구, 장애를 극복하여 목표를 이루고자하는 욕구, 자신을 다른 사람들 보다 잘하고 싶은 욕구로서 자신의 능력 발휘를 통하여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욕구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성취욕구가 있는 사람은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거나 일을 추진함에 있어 스스로 책임지고 설정한 목표를 성취하려는 자세를 가지면서 자신의 노력으로 일을 성공시키려 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기존연구는 Steers & Braunstein(1976)의 Manifest Needs Questionnaire에 의해 표준화된 5개의 설문문항을 5점 척도로 이용하였다(<표 1> 참조).

개인특성인 위험감수성향은 개인이 의사결정 상황에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를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Begley & Boyd, 1987)에 기초하여 5개의 문항을 이용하였다(<표 1> 참조).

창업교육이란 예비 창업자 또는 잠재적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에게 사업을 계획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역량, 태도 등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재석·이상명, 2015). 이를 측정하기 위해 기존연구를 참고하여 9개 문항을 이용하였다(<표 1> 참조).

창업지식은 심리적 조건들에 더해져 실질적으로 창업을 행동하는 요소로서 구체적인 창업관련 지식들을 말한다(차화숙, 2012). 이를 측정하기 위해 기존연구를 참고하여 7개 문항을 이용하였다(<표 1> 참조). 창업의지는 잠재적 창업자가 미래에 자발적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러한 선택이나 결정에 대한 내적이고 개인적인 역량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선혜, 2016). 이를 측정하기 위해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8개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표 1> 참조).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구성 개념	조작적 정의	연구자
성취 욕구	(ach1) 맡은 일이 약간 어려울 때 더욱 더 열심히 일하기 좋아함	Steers & Braunstein (1976)
	(ach2) 지난 과거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 열심히 일함	
	(ach3) 동료보다 더 일을 잘하려고 노력	
위험 감수 성향	(risk1) 해야 할 일이면 어느 정도의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함	Begley & Boyd (1987)
	(risk2) 위험이 뒤따르는 일이라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일 이라면 기꺼이 수행	
	(risk3) 불확실한 상황에서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해쳐나감	
창업 교육	(edu1) 창업교육이 실패에 대한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	이재석·이상명 (2015)
	(edu2) 창업교육 후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를 교훈으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었음	
	(edu3) 창업교육을 통하여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됨.	
	(edu4) 창업교육 후 배운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인드가 증대됨	
	(edu5) 우리나라 창업교육 지원 정책에 만족	
	(edu6) 창업교육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가 증가	
	(edu7) 창업 강의를 통하여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	
	(edu8) 창업교육은 살아가는데 도움	
창업 관련 지식	(know1) 창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음	차화숙 (2012)
	(know2) 창업성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음	
	(know3) 타인에게 창업관련지식을 잘 설명할 수 있음	
	(know4) 창업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지 알고 있음	
	(know5) 창업에 필요한 자금의 요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음	
	(know6) 창업에 필요한 법률적 부분을 잘 알고 있음	
	(know7) 창업을 위해서 어떤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음	
창업 의지	(int1) 기회가 닿으면 창업을 하고 싶음	이선혜 (2016)
	(int2) 장차 창업할 확고한 의지가 있음	
	(int3) 학교 졸업 후 5년 이내에 창업할 것임	
	(int4) 창업관련 교육에 관심과 흥미가 많음	
	(int5) 창업을 하면 성공할 것이라 생각	
	(int6) 창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멘토를 만나볼 의향이 있음	

4.2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충청지역 대학에서 창업지원을 실시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응답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창업교육, 창업관련지식 및 창업의지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본인이 직접 기입하도록 하는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방법을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2017년 10월 약 한 달 동안 350부를 배포하여 320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가운데 유효한 설문지 312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V. 실증분석 결과

5.1 표본특성

응답자들의 표본을 살펴보면 2,3학년 학생들이 약 70% 응답했으며, 이공계열학생의 응답비율이 약62%이다. 한편, 창업관련교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응답학생이 47%, 창업관련특강 미참여 56%, 창업동아리 미참여 77% 등으로 나타나 아직도 정부 및 학교에서의 창업관련 지원정책은 체계적이지 못하여 대학 내에서 창업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표본 분포

구분	빈도	퍼센트	
학년	1학년	33	10.6
	2학년	101	32.4
	3학년	117	37.5
	4학년	61	19.6
	전체	312	100.0
전공	인문사회계열	28	9.0
	이공계열	193	61.9
	경상계열	26	8.3
	예체능계열	43	13.8
	기타	22	7.1
	전체	312	100.0
창업관련 과목 수강	경험 없음	147	47.1
	1회	119	38.1
	2-3회	32	10.3
	4-5회	12	3.8
	6회 이상	2	0.6
	전체	312	100.0
창업관련 특강 참여	경험 없음	175	56.1
	1회	69	22.1
	2-3회	42	13.5
	4-5회	18	5.8
	6회 이상	8	2.6
	전체	312	100.0
창업관련 캡프 참여	경험 없음	257	82.4
	1회	33	10.6
	2-3회	15	4.8
	4-5회	4	1.3
	6회 이상	3	1.0
	전체	312	100.0
창업동아리	경험 없음	241	77.2
	1회	51	16.3
	2-3회	17	5.4
	6회 이상	3	1.0
	전체	312	100.0
부모직업	농업	14	4.5
	월급생활자	170	54.5
	자영업	86	27.6
	기타	42	13.5
	전체	312	100.0
가족창업경험	경험 없음	189	60.6
	과거경험	58	18.6
	진행 중	65	20.8
	전체	312	100.0

구분	빈도	퍼센트	
희망창업업종	제조업	25	8.0
	도매 및 소매(온라인쇼핑몰 포함)	63	20.2
	숙박 및 음식점	54	17.3
	출판 영상·정보 등	13	4.2
	전문 과학 기술 IT	81	26.0
	여행, 교육, 렌탈 등 서비스	32	10.3
	보건 및 사회복지	7	2.2
	예술 스포츠 여가	37	11.9
	전체	312	100.0

5.2 측정모델 평가

본 연구에서는 Anderson & Gerbing(1988)이 제안한 2단계 절차를 통한 구조방정식모델검정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에 따라 1단계에서 측정모델을 평가하는데 이 때 확인적 요인분석을 활용한다. 2단계에서는 측정변수와 이론변수를 포함하는 구조방정식모델을 통해 구성개념 간 구조모델을 평가한다.

본 연구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활용하여 측정모델을 평가하기에 앞서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Cronbach's Alpha값을 활용한 신뢰도 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활용한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신뢰도 분석결과에서 Cronbach's Alpha값은 성취욕구 (3개 문항)가 0.717, 위험감수성향 (3개 문항)이 0.753, 창업교육 (8개 문항)이 0.869, 창업관련지식 (7개 문항)이 0.932, 창업의지 (6개 문항)가 0.917로 나타났다. 이처럼 Cronbach's Alpha값은 척도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기준인 0.7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주성분분석을 통한 직각회전법을 사용하여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구성개념을 측정할 항목들은 모두 5개의 요인으로 묶였으며, 동일 요인으로 묶이는 측정항목들의 요인적재치는 모두 0.62이상으로 0.5보다 높게 나타났고, 요인적재치의 중복 적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이 높게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확증하기 위하여 AMO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후, 측정모델의 신뢰도와 분산 추출값을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구성개념을 측정할 척도들이 대표성을 갖는지 검증하였다.

최초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전반적 모델 적합도 지수는 $\chi^2 = 788.688(p=0.00)$, $df=314$, $\chi^2/df=2.51$, $GFI=0.836$, $AGIF=0.80$, $CFI=0.90$, $RMSEA=0.070$, $RMR=0.06$ 으로 기존 연구의 권장수준에 일부가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부 적합도 지수를 기초로 측정모델을 수정하고, 측정모델을 재 추정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의 수정지수를 기초로 반복적으로 측정변수를 제거하고, 다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창업교육을 측정한 edu1, edu2 및 edu5, 창업관련

지식을 측정한 know2와 know6, 창업의지를 측정한 int1과 int3을 제거하였다. 최종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성 개념	측정 변수명	적재치	C.R.	표준 적재치	오차	신뢰도	분산 추출값
성취 욕구	ach1	1		0.595	0.497	0.799	0.575
	ach2	1.205	9.088	0.821	0.191		
	ach3	0.999	8.412	0.645	0.381		
위험 감수 성향	risk1	1		0.685	0.364	0.822	0.609
	risk2	1.305	10.651	0.823	0.261		
	risk3	0.90	9.437	0.641	0.374		
창업 교육	edu3	1		0.757	0.295	0.887	0.613
	edu4	1.011	13.45	0.786	0.25		
	edu6	0.974	11.939	0.700	0.39		
	edu7	0.924	12.464	0.729	0.297		
	edu8	0.908	11.115	0.654	0.436		
창업 관련 지식	know1	1		0.758	0.422	0.886	0.609
	know3	1.076	14.316	0.796	0.382		
	know4	1.191	14.425	0.802	0.45		
	know5	1.055	13.643	0.763	0.457		
	know7	1.251	15.499	0.857	0.324		
창업 의지	int2	1		0.804	0.477	0.815	0.526
	int4	0.997	17.183	0.873	0.272		
	int5	0.810	13.672	0.726	0.514		
	int6	0.949	15.447	0.800	0.444		
모델 적합도	$\chi^2=308.628(p=0.10)$, $df=160$, $\chi^2/df=1.93$, $GFI=0.91$, $AGFI=0.88$, $CFI=0.95$, $RMSEA=0.055$, $RMR=0.044$						

최종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전반적 모델 적합도 지수는 $\chi^2=308.628(p=0.10)$, $df=160$, $\chi^2/df=1.93$, $GFI=0.91$, $AGFI=0.88$, $CFI=0.95$, $RMSEA=0.055$, $RMR=0.044$ 로 모델이 경험 자료에 잘 부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모든 측정변수의 표준요인적재치가 0.60이상이고 각각의 측정변수의 C.R.(t값을 의미)이 5%유의수준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측정변수의 집중타당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모델에서 척도들이 해당 구성개념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구성개념의 신뢰도 (Construct Reliability)와 분산추출값 (Variance Extracted)을 계산하였다. 구성개념의 신뢰도는 일반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기준치인 0.70보다 높아야 하고, 분산추출값은 추천 기준치인 0.50보다 높아야 한다(Hair et al., 1995).

본 연구모형내 구성개념의 신뢰도는 모두 0.80이상이고, 분

산추출값은 모두 0.53이상으로 일반적인 추천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나 척도들이 해당 구성개념에 대해 대표성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2> 참조).

측정모델 평가에서 판별타당성은 구성개념간 상관계수와 분산추출값의 제곱근으로 판별타당성을 검증한다. 만약 두 요인 사이에 구한 분산추출값의 제곱근이 각 요인의 상관계수 보다 크다면 두 요인 사이에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구성개념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상관계수의 신뢰구간에 1이 포함되지 않아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해석하는 내용과 동일하다(김계수, 2010; Barclay et al., 1995).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분산추출값의 제곱근은 두 요인의 상관계수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고 있는 판별타당성이 입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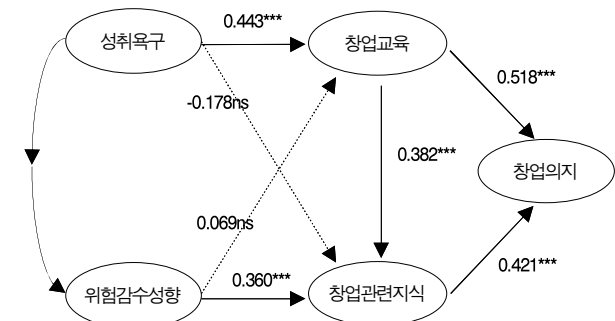
<표 3> 구성개념간 상관관계와 분산추출값의 제곱근

구성개념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1. 성취욕구	3.72	0.65	0.758				
2. 위험감수성향	3.38	0.69	0.618	0.781			
3. 창업교육	3.40	0.66	0.485	0.322	0.783		
4. 창업관련지식	2.65	0.89	0.229	0.372	0.419	0.780	
5. 창업의지	3.12	0.94	0.348	0.447	0.693	0.633	0.725

주) 대각선은 분산추출값의 제곱근

5.3 가설검정결과

측정모델의 전반적 모델 적합도 지수와 세부 부합지수를 고려할 때 측정모델이 수용할 수 있어 다음 단계로 측정변수와 이론변수를 모두 포함하는 구조방정식모델을 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델을 이용하여 모델 적합도를 확인하고, 연구모델의 모수들을 동시에 추정하였으며, 모수추정법은 측정변수들의 정규분포성을 가정하는 최우추정법 (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이용하였다. 가설검정을 위해 최종적으로 도출된 구조모형은 <그림 2>와 같다.



주) **: $p<0.05$ ***: $p<0.01$ ns: 비유의적

<그림 2> 구조모형

우선, 구조방정식모델의 전반적 모델 적합도 지수는 $\chi^2 = 317.991(p=0.000)$, $df=162$, $\chi^2/df=1.962$, $GFI=0.91$, $AGFI=0.88$, $RMSEA=0.056$, $RMR=0.047$, $CFI=0.95$ 로 기존 연구에서 권장하고 있는 수준을 대체로 충족시키고 있어, 본 연구모형이 개인특성→창업교육 및 창업관련지식→창업의지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적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연구모형에 포함된 구성개념간 관계를 해석할 수 있다.

<표 4> 가설검정결과

가설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화된 경로계수	t값	p값	가설 채택 여부
가설1-1 성취욕구 → 창업교육	0.519	0.443	4.297	***	채택
가설1-2 위험감수성향 → 창업교육	0.073	0.069	0.743	0.457	기각
가설2-1 성취욕구 → 창업관련지식	-0.259	-0.178	-1.768	0.077	기각
가설2-2 위험감수성향 → 창업관련지식	0.475	0.36	3.846	***	채택
가설3 창업교육 → 창업관련지식	0.472	0.382	4.934	***	채택
가설4 창업교육 → 창업의지	0.791	0.518	8.106	***	채택
가설5 창업관련지식 → 창업의지	0.52	0.421	7.348	***	채택

주) **: $p < 0.05$ ***: $p < 0.01$

개인특성인 성취 욕구에서 창업교육으로의 표준화된 경로계수는 0.443이고 t값은 4.297로 나타났으며, 이는 1% 유의수준에서 성취욕구가 창업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1-1을 채택한다. 이처럼 대학생들의 성취욕구가 높을수록 학교에서 실시하는 창업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특성인 위험감수성향에서 창업교육으로의 경로계수는 0.069이고 t값은 0.743으로 나타나 1% 유의수준에서 위험감수성향이 창업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1-2는 기각되었다. 이는 위험감수성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위험대처능력이 뛰어난 학생들로 제도화된 창업교육을 적극적으로 받고자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개인특성인 성취 욕구에서 창업관련지식으로의 경로계수는 -0.178이고 t값은 4.297로 나타나 1% 유의수준에서 성취욕구가 창업관련지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2-1은 기각되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성취욕구가 높을수록 제도화된 창업교육 노력에는 영향을 주나 성취욕구가 높다고 창업관련지식이 향상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특성인 위험감수성향에서 창업관련지식으로의 경로계수는 0.360이고 t값은 3.846으로 나타나 1% 유의수준에서 위험감수성향이 창업관련지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2-2는 채택되었다. 이는 위험감수성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틀에 박힌 창업교육을 적극적으로 받고자하는 성향을 가

지고 있지 않지만 창업관련지식은 적극적으로 체득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 창업교육은 창업관련지식으로의 표준화된 경로계수는 0.382이고, t값은 4.934로 나타났으며, 이는 1% 유의수준에서 창업교육이 창업관련지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3을 채택한다. 이는 학생들이 창업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창업관련지식이 향상됨을 알 수 있어 창업의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창업교육을 통한 창업관련지식의 습득에 체계화를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와 관계에서 표준화된 경로계수는 0.518이고, t값은 8.106으로 나타나 이는 1% 유의수준에서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4는 채택한다. 창업교육은 그 자체로서도 창업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음으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창업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창업관련지식은 창업의지로의 표준화된 경로계수는 0.421이고, t값은 7.348로 나타나 이는 1% 유의수준에서 창업관련지식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5는 채택한다. 따라서 창업교육을 통한 창업관련지식의 습득이 창업의지를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을 통하여 볼 때 개인특성인 성취욕구나 위험감수성향은 창업교육이나 창업관련지식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창업의지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

VI. 결론

본 연구는 대학에서 창업교육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개인특성인 성취욕구와 위험감수성향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창업교육과 창업관련지식이 구조적 관계를 형성하는지 실증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연구결과, 대학생들의 개인특성인 성취욕구가 창업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성취욕구가 높을수록 창업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위험감수성향은 창업관련지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위험감수성향을 지닌 학생들은 제도화된 창업교육을 통하지 않더라도 창업관련지식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습득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특성으로 위험감수성향을 지닌 학생들은 창업교육을 적극적으로 받고자 원하지 않았으며, 성취욕구가 있는 학생들도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관련지식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창업교육은 창업관련지식으로의 관계는 긍정적인 효과로 학생들이 창업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창업관련지식이 향상됨을 알 수 있어 창업의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창업교육을 통한 창업관련지식의 습득에 체계화를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창업교육은 그 자체로서도 창업의지를 향상시켜 학생들로 하여금 창업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창업관련지식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창업교육을 통한 창업관련지식의 습득이 창업의지를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따라서 개인특성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지만 창업교육과 창업관련지식을 실행하고 체득케 함으로서 창업의 의지와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이 창업교육, 창업관련지식의 습득여부에 따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연구 결과 개인적 특성은 창업교육, 창업관련지식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한 창업교육과 창업관련지식의 습득은 창업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창업교육의 성과지표인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창업교육은 획일화된 교육보다는 창업자의 개인특성에 맞춰 단계별 창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업관련지식을 습득케 하는 것은 창업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창업관련지식 습득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교실에서 벗어나 창업자 곁에서 체험하게하고, 법·행정적 절차의 습득을 위해 창업관련부서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그리고 회계세무업무를 익힐 수 있는 세무·회계법인 에서 인턴십을 체험하도록 교육방법을 제도화함으로써 창업관련지식이 체화될 것이다.

셋째, 지속적인 창업교육을 통한 창업관련지식 습득은 창업의지의 원동력이 되는 결과로서 창업교육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창업교육 및 창업관련지식 능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창업관련 교육콘텐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이상과 같은 의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계점이 존재하므로 해석 및 활용상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이 창업교육 수행과 창업관련지식의 습득여부에 따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실제 창업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변수를 도출하여 연구모형을 정교화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표본 선정에 있어 인근지역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지역적인 범위를 넓혀서 표본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연령대에서 창업교육을 통한 준비 및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연령층을 확대하여 차후에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

- 강재학·양동우(2016).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기회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17(1), 493-507.
- 곽동신·정희영·김명숙(2016). 대학의 창업교육 서비스 품질이 교육만족과 창업역량,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벤처창업학회*, *벤처창업연구*, 11(4), 37-48.
- 김계수(2010).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출판사.
- 김기홍·김용태(2014). 창업 멘토링 교육요인이 창업교육 만족도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9(5), 33-41.
- 김상수·김용우(2000). 지식경영의 성공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영학연구*, 29(4), 585-616.
- 김성준(2010). *한국과 중국의 잠재적 창업가의 창업의지에 관한 비교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 김완재(2007). 창업자 특성과 소기업 사업성과 간 관계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2, 33-60.
- 김용태(2009). *창업교육의 효과 및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창업대학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 김주미·오상훈·양재경(2007). *우리나라 창업교육 현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창업대학원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원.
- 김창중(2011). *변혁적 리더십, 열정, 성취욕구, 혁신행동 및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 주얼리기업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 노순규(1999). *지식경영의 도입과 지적자산의 평가방법*, 월간 공인회계사, 1999.9월호, 36.
- 박시사·강성일(2007). 개인특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여행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1(2), 187-204.
- 박윤희(2004). 실업계 고등학교 창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교육연구*, 23(3), 1-26.
- 배종태·차민석(2005). 기업가정신과 벤처경영 부문의 연구동향, *벤처경영연구*, 8(3), 57-94.
- 백기복(1994). *조직행동연구*, 서울: 법문사.
- 변상해·강선자(2017). 예비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창업준비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2(4), 85-96.
- 심덕섭·최지호(2007). 시장지식의 창출노력과 기억이 신제품 성과에 미치는 영향: 환경 동태성의 조절효과, *금융지식연구*, 제 5(1), 139-157.
- 윤방섭(2004). 창업 의지의 결정요인: 개인특성 및 환경요인, *산학경영연구*, 17(2), 89-105.
- 윤백중(2012). *대학생의 기업가정신과 창업동기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 이상문·장대성(2003). 벤처창업 교육과 창업정신 향상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 연구, *Korea Business Review*, 7(1), 7-25.
- 이선혜(2016). *대학생의 심리적 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창업교육만족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 이승재·황보윤(2010). 단기 창업교육이 예비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변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벤처창업연구*, 5(1), 19-44.
- 이재석·이상명(2015).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 기업가 지향성과 환경적 요인의 조절 효과, *벤처창업연구*, 10(3), 61-74.
- 이지우(2000). 개인특성과 창업의지 사이의 관계, *중소기업연구*, 22(1), 121-146.
- 임순영(2012). *창업교육 성과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교수실재감의 예측력 규명*,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임채관·허범영·이정실(2013). 서비스업의 창업자 지식, 인적 네트워크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환경특성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비스경영학회지*.
- 장석운(2012). *외식창업의 매뉴얼결정요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본력과 입지력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 정유선(2018). *대학생들의 개인특성이 창업교육, 창업관련지식, 자기효능감에 의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 정태화(1996). 직업교육의 새로운 도전으로서 창업교육, *공업기술교육*,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1-41.
- 조병주(1998). 창업교육: 교육과정전개와 효과적 교수방법, *경영교육연구*, 2(2), 27-48.
- 조준희·김찬중(2015).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창업교육과 창업참여의 조절효과, *인적자원개발연구*, 18(4), 53-75.
- 차화숙(2012). 정부정책과 대학교육이 기업가정신과 창업지식에 미치는 영향: 공예분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최옥희·박중희·김남현(2017). 대학생의 창업교육이 창업성향과 창업의도간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 *관광연구저널*, 31(1).
- 하규수·서란숙(2009). 대학생의 창업교육 요구도와 창업의지, *한국벤처창업학회 추계학술대회*.
- 한수진(2015).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주관적 규범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 호명환(2016). 대학 및 사회의 창업지원과 대학생의 창업의지 간의 관계: 자기 효능감과 위험 감수성의 매개효과와 멘토링의 조절효과,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황보윤·양영석(2012). 창업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창업전문대학원 설립방안 연구, *벤처창업연구*, 7(1), 113-123.
- Ajzen, I., & Fishbein, M.(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Alavi, M., & Leidner, D. E.(2001). Knowledge Management and Knowledge Management Systems: Conceptual Foundations and Research Issues, *MIS Quarterly*, 25, 107-136.
- Allport, G. W.(1937). *Personality: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New York: Holt.
- Anderson, J. C., & Gerbing, D. W.(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Bailetti, T.(2011). Fostering Student Entrepreneurship and University Spinoff Companies, *Technology innovation Management Review*, October, 7-12.
- Barclay, D., R. Thompson., & Higgins, C.(1995). The Partial Least Squares(PLS) Approach to Causal Modeling: Personal Computer Adoption and Use an Illustration, *Technology Studies*, 2(2), 285-309.
- Baumgartel, H. J., Reynolds, J. I., & Pathan, R. Z.(1984). How Personality and Organizational Climate Variables Moderate the Effectiveness of Management Development Programmes: A review and some recent research findings, *Management & Labour Studies*, 9(1), 1-16.
- Begley, T. M., & Boyd, D. P.(1987).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Performance in Entrepreneurial Firms and Smaller Business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1), 79-93.
- Bird, B.(1988).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The Case for Inten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442-453.
- Brockhaus, R. H.(1975). I-E Locus of Control Scores as Predictor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Academy of Management Proceedings 1975*, 433-435.
- Cattell, R. B.(1965). Factor analysis: An Introduction to Essentials I: The Purpose and Underlying Models, *Biometrics*, 21, 190-215.
- Clow, J. E.(1997). Entrepreneurship Education, *National Business Education*.
- Covin, J., & D. Slevin.(1991). A Conceptual Model of Entrepreneurship as Firm Behavior, *Entrepreneurship Theory Practice*, 16(7), 7-25.
- Crant, J. M.(1996). The Proactive Personality Scale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4(3), 42-49.
- Drucker, P.(1993). *Post-Capitalism Society*, New York: Harpes Business Press.
- Fishbein, M., & Ajzen, I.(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NY: Addison-Wesley.
- Garavan, T. N., & O'Conneide, B.(1994).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mes: A Review and Evaluation Part 1,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18, 3-12.
- Gibb, A. A.(2002). Creating Conducive Environments for Learning and Entrepreneurship: living with, dealing with, creating and enjoying uncertainty and complexity, *Industry and Higher Education*, 16(3).
- Hair, J. F., Anderson, Jr., R. E., Tatham, R. L., & Black, C.(1995). *Multivariate Data Analysis with Readings, 4th ed*,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Hatten, T. S., & Ruhland, S. K.(1995). Student Attitude Toward Entrepreneurship As Affected by Participation in an SBI Program, *Journal of Education For Business*, 70(4), 224-227.
- Jackson, D. N., Hourany, L., & Vidmar, N. J.(1972). A Four-Dimensional Interpretation of Risk Taking, *Journal of Personality*, 40(3), 483-501.
- Johnson, B. R.(1990). Toward a Multidimensional Model of Entrepreneurship: The Case of Achievement Motivation the Entrepreneu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6(1), 39-54.
- Krueger, N. F.(1993). The Impact of Prior Entrepreneurial Exposure on Perceptions of New Venture Feasibility and Desirability,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1).
- Lyles, Marjorie. A., & Charles R. S.(1992). Top Management, Strategy and Organizational Knowledge Structures,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29(2), 155- 174.
- Mazzarol, T., Thierry Volery, Noelle Doss., & Vicki Thein (1999). Factors Influencing Small Business Start-ups, A Comparison with Previous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and Research*, 5(2), 48-63.
- McClelland, D. C.(1961). *The Achieving Society*, Princeton, NJ: Van Nostrand.
- Morris, M. H.(1998). *Entrepreneurial Intensity*, Westport: Quorum Books.
- Murray, H. A.(1938). *Explorations in Person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 Payne, D. K.(1998). *Training Resources Group*, Boston: McBer Co.

- Pittaway, L., & Cope, J.(2007). Entrepreneurship Education: A Systematic Review of the Evidence,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25(5), 479-510.
- Raichaudhur, A.(2005). Issues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Decision of Indian Insitute of Management Calcutta*, 32(2), July-December.
- Ronstadt, R.(1985). The Educated Entrepreneurs: A New Era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is Beginning,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 Saeed, S., Yousafzai, S. Y., Yani, D. S., M., & Muffatto, M.(2015). The role of perceived university support in theformation of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3(4), 1127-1145.
- Sagie, A., Elizur, D., & Yamauchi, H.(1996). The Structure and Strength of Achievement Motivation: A Cross-Cultural Comparison,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7, 431-445.
- Sandberg, W. R., & Hofer, C. W.(1987). Improving New Venture Performance: The Role of Strategy, Industry Structure, and the Entrepreneur,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1), 5-28.
- Shapero, A., & Sokol, L.(1982). The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In C. A. Kent, D. L. Sexton, & K. H. Vesper(Eds.),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72-90.
- Smith, R., & Miner, B.(1983). Type of Entrepreneur, Type of Firm and Managerial Motivation; Implications for Organizational Life Cycle Theor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4(4), 325-340.
- Steers, R. M., & D. N. Braunstein.(1976). A Behaviorally-based Measure of Manifest Needs in Work Setting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 251-266.
- Timmons, J. A.(1994).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Boston, MA: Irwin McGraw-Hill.
- Veciana, J. M., Alponde, M., & Urbano, D.(2005). University Students' Attitudes towards Entrepreneurship: a two countries comparison,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 165-182.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Undergraduates' Individual Characteristics, Startup Education, Startup-Relevant Knowledge and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s

Jung, Yu Sun*
Jung, Hwa Young**

Abstract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undergraduates' individual characteristics(need for achievement, risk-taking propensity), startup education, startup-relevant knowledge and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s. The mediating variables examined were startup education and startup-relevant knowledge. In results, the higher need for achievement the undergraduates get, as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college students, the more active the entrepreneurial education is to receive. Students with a risk-taking propensity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ir knowledge of entrepreneurship and expect to acquire any knowledge of entrepreneurship even if they are not actively receiving entrepreneurial education. However, risk-taking propensity showed that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need for achievement had no effect on entrepreneurial knowledge. On the other h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itself shows that it can be a driving force to promote entrepreneurship. In addition, since entrepreneurship education positively affects the entrepreneurial will with the knowledge of entrepreneurship as a parameter, it is necessary for the students to increase entrepreneurial will by getting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improving the knowledge about entrepreneurship. In order to do this, the school should formalize regular business start-up education and acquire business startup-relevant knowledge. Therefore, although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college students influence the will to start a business, it is necessary to find out the will and opportunity of the startup by implementing and acquiring the startup education and startup-relevant knowledge. In this study, some of the universities in the specific area have been studying on the startup education. However, the future study should be conducted on the schools that have startup education nationwide.

Key words: Individual characteristics, Startup Education, Startup-Relevant Knowledge, Entrepreneurial Intentions

* First Author, MS of Graduate School of Entrepreneurial Management, Hanbat National University, ysjung@kongju.ac.kr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 Accounting, Hanbat National University, chy555@hanbat.ac.kr